

출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워크시트

출간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게 되면, 원고 투고나 집필의 과정, 글쓰기를 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출간에 관련된 워크시트를 제공해드립니다.



출간 과정에 따른 작은 팁

■ 소재 수집

-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 앱을 활용해서 적어보세요.(이런 걸로 책이 될까? 싶은 생각도 일단 적어두기)
-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아이디어를 얻어 봅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글감도, 책 기획도 새로워집니다.
(ex.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더라도 인문서,과학서 등을 읽어보거나, 인문서를 쓰더라도 소설을 읽어보는 등
생각과 시야의 범위를 넓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 시장 분석

- 대형 서점에 들러 내가 내고자 하는 책 분야의 책, 또는 온라인 서점 속 도서 미리 보기를 통해 출간하려는 분야의 책 제목 뿐 아니라 표지, 목차까지 뜯어 보세요
(특히 목차를 통해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 주제 결정

- 막연한 주제보다 뽀족한 주제를 찾아봅니다.
(ex 행복 → 육아에 지친 워킹맘을 위한 출근길 10분 행복 루틴' 등 타깃 독자와 상황을 구체화합니다.)
- 첫 책을 내는 예비 저자라면 나의 경력이나 직업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투고하는 것이 투고 성공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 나의 지식, 경력 등을 결합해도 좋습니다.)

■ 목차 짜기

- 각 장(chapter)에 들어갈 핵심 내용을 포스트잇에 하나씩 적어 벽이나 넓은 책상에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좋지만 '독자가 궁금해 할 내용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방식으로 목차를 구성해보는 게 좋습니다.

■ 원고 투고

- 기본적인 맞춤법과 띄어쓰기, 주술 호응 등이 잘 정리된 원고가 저자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첫인상입니다.
(저의 경우 투고 메일 본문부터 몇 번 읽어보고 퇴고를 거듭 해서 보내는 편입니다)
- 출판사가 월말(또는 월초)에 마감으로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다른 시기에 원고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 월요일 오전이 되면 주말에 보낸 투고 원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고 하니, 다른 요일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 출판사마다 추구하는 방향, 주요 타깃 독자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출간 기획서를 조금씩 수정해서 보내는 걸 추천 드려요.
- 원고 투고 후 출판사 미팅 등이 있다면, 레퍼런스가 될 만한 도서를 미리 찾은 다음, 편집자와 의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편집자와 출판사일수록 책 작업을 하기 좋습니다.

■ 출판 계약

- 일반적인 인세 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계약금이 인세의 일부를 미리 주는 '선인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보통 출판사에서 출판 계약서 초본을 먼저 보내주고 질문을 한 뒤 서명을 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당 편집자에게 꼭 질문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초고 쓰기

- 초고는 '완성'이 아니라 '존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글이 불만족스럽거나 수정하고 싶어도 일단 정해진 목차의 끝까지 쓰는 데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요.
- 글을 쓰는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도록 물리적 설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예 꺼두거나 멀리 두거나 뽀모도로 타이머 앱 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 타깃 독자를 특정한 페르소나로 설정해 두고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타깃 독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주변인이나 가상 인물을 상상하면서 그에게 건넬 이야기를 쓴다고 상상하면 집필에 도움이 됩니다.
- 원고에 통계자료, 사실과 관련된 자료, 그림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 문헌, 출처가 되는 사이트 등을 따로 기록해두었다가 편집자에게 함께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교정 교열

- 원고를 소리 내어 읽으면 눈으로만 보지 못했던 어색한 문장이나 오타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보통 1~2교는 한글 파일로(hwp), 저자교(마지막으로 내지 디자인이 얹혀 와서 확인하는 교정본)는 PDF 파일로 옵니다. 저자교의 경우 이미 내지 디자인이 끝나서 크게 수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내지 편집 디자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분량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집 디자인/제목 및 부제 결정

- 기본적으로 기획출간의 경우 편집 디자인 및 제목과 부제를 결정하는 건 출판사가 주도하지만, 최종 선택 시 저자의 의견을 묻거나 제목이나 표지의 후보 중에서 고르는 투표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솔직하게 의견을 내셔도 좋습니다.
- 원하는 스타일의 다른 책 표지나 이미지 레퍼런스를 찾아 보여주고 의견을 주고받아도 좋습니다.
-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 표지 시안 투표 등을 SNS에 올려 독자의 관심을 미리 끌 수도 있습니다.

■ 서점 배본 및 유통

- 출간 이후에 SNS에 알리고 싶다면, 몇 달 전부터 해당 SNS 활동을 충실히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표지 시안 투표나 출간 과정 공유 등을 통해서 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건네도 좋고요.
- 출간 직후 책을 읽고 온라인 서점이나 SNS에 리뷰를 남겨줄 서평단을 미리 모집하고 출판사와 협의하여 책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홍보 방법입니다.
- SNS, 블로그, 이메일 등을 통해 독자들의 리뷰나 질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소통하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 그러나 내 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 등에 일일이 맞대응하거나 답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비판도 있지만(이 경우 해당 의견을 냉정하게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비난이나 악평이 섞여 있을 경우 글을 쓴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을 비난하는 그 당사자 내면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저자가 일일이 수정하거나 고쳐줄 수 없습니다.
- 책 하나를 쓰다 보면 자료 수집이나 글쓰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다음 책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